

# 地域社會를 爲한 情報奉仕에 關한 一研究

—大學圖書館을 中心으로—

金 南 碩 ★

內	容
I. 序 論	Ⅲ. 情報奉仕의 諸方案
Ⅱ. 大學圖書館의 社會情報奉仕의 必 要性	1. 情報에 對한 Source 提供
1. 韓國經濟社會化的 構造	2. 企業體資料室의 對한 技術支援
2. 大學의 社會的 機能	3. 資料의 貸出 및 施設活用問題
3. 大學圖書館의 社會的 機能	4. 郵便貸出問題
4. 相互協力體制의 確立	5. 弘報活動의 強化
	Ⅶ. 結 論

## I. 序 論

1960年代의 第1次 經濟開發 五個年計劃의 樹立과 이의 成功的 遂行은 우리나라의 產業構造를 變化시키는데 커다란 役割을 하였다, 即 傳統的인 農耕社會로 부터 農工 並進의 社會로의 履行을 促進시켰으며, 1960年代末과 70年代에 이르는 第2,3次 經濟 開發五個年計劃의 成功은 工業國으로서의 急激한 成長을 可能케 하였다. 이러한 社會 變化要因은 大學의 傳統的인 目標 即, 教授 및 眞理探究에 在하여 社會發展의 母胎가 되고 이를 誘發할 수 있는 “社會奉仕”라는 새로운 理念을 追加시키도록 必要하게 되었다.

大學圖書館은 大學의 從屬機關으로서 大學의 理念具現을 爲한 한 手段인은 自他가 共認하는 바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大學圖書館은 이러한 理想과는 大相 徑庭의 差라고 言할 수 있다. 大學 圖書館의 門은 內部로 닫혀 닫혀 있어 地域社會의 住民들은 其의 利用을 不能으로 있으며, 그들이 必要로 하는 專門的知識의 吸收은 매우 어려운 處地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產業社會로의 加速化는 이의 發展을 促進시킬 情報의 需要를 漸次 增大시키가고 있는 反面 이의 基本的 必要條件인 公共圖書館이나 特殊圖書館의 改良은 매우 漸進的이라 情報의 需要나 供給이 均衡을 喪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諸般 條件下에서 지금 政府가 積極推進하고 있는 工業立國, 產學協同의 成功的 履行을 爲해서 大學圖書館은 傳統的인 大學에 對한 奉仕는 勿論이거니와 地域社

★ 啓明大學 圖書館長 및 併設專門學校 圖書館學科長

會에 對한 奉仕가 模索되어야 할 것이다.

小考는 大學 圖書館이 地域社會에 對하여 奉仕하여야 할 必要性을 論하고 그 具體的인 몇가지 方案을 提示함으로써 大學 圖書館과 地域社會間의 互補적 相互協同體制를 이루게 하는데 그 目的을 둔다.

## II. 大學圖書館의 社會 情報奉仕의 必要性

### 1. 韓國産業社會化의 構造

우리나라의 産業社會化로서의 發展은 1963年 第1次 經濟開發 5年計劃을 起點으로 工業部分에서 부터 急激한 發達의 樣相을 띄우기 시작하였다.<sup>(1)</sup>

1960년에 15,572個의 事業體의 從業員은 315,054명<sup>(2)</sup>이었던 것이 10년이 지난 1970年의 事業體는 1.6배가 增加한 25,816個所로 늘어났고 從業員은 2.9배가 增加한 937,650명<sup>(3)</sup>으로 나타나 産業社會化로의 履行을 促進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面에서 살펴 보면 都市의 人口增加 現象이라 하겠다. 社會變化의 가장 큰 問題의 하나는 都市의 人口急增에 따른 社會的인 問題이며 이러한 現象은 곧 社會發展을 意味하고 社會構造가 變化된 證據라고 할 수 있겠다. 即 農耕社會인 前近代의 社會體制에서 近代의 工業國으로의 發展과 情報化社會로의 發展을 爲한 過渡期的인 現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都市化人口率 <sup>(4)</sup>		産業別 就業人口率 <sup>(5)</sup>			
年 度	都市化率	年 度	1次 産業	2次 産業	3次 産業
1966	33%	1969	52%	14%	34%
1970	39%	1980	30%	28%	42%
1980	55%	1990	17%	38%	45%
2000	75%	2000	10%	41%	49%

韓國에 있어서 都市人口 集中現象은 1966年 都市와 農村의 人口比 33 : 67, 1970年 39 : 61의 比率로 나타났고, 1980년에는 55 : 45, 2000년에는 75 : 25의 比率로 우리나라 全體人口의 3/4이 都市에 集中될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産業別 就業人口 構造 역시 1969年 1次産業 52%에서 1980年 30%, 1990年 17%, 2000年 10%로 줄어들면서 2次産業은 1969年 14%에서 2000년에는 41%로 늘어나고,

(1) 金永植, “中小機械工業의 空間變化” 研究論文集(五성여자대학), 1974, pp. 331-2.

(2) 한국통계연보 : 제12회(경제기획원, 1965)에서 발췌.

(3) Ibid : 第17회에서 발췌.

(4) 과학기술연구소, 서기 2000년의 한국에 관한 조사연구(과학기술원, 1971), p. 12.

(5) Ibid., p. 13.

3次産業은 1969年 34%에서 2000년에는 49%로 늘어날 것이라고 推定하고 있다.

이와 같은 第 2,3次 産業의 就業人口 增加와 都市 人口集中 現象은 오늘날 韓國 社會의 構造的인 轉換을 爲한 커다란 問題의 焦點이기는 하나 더욱 重要한 것은 農業國에서 工業國으로의 社會的인 發展이라 하겠다. 이러한 社會의 發展은 社會속에서 生活하는 市民으로 하여금 高度의 專門知識을 要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現象은 情報의 必要性을 切實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時代的 要求에 副應하기 爲하여 大學圖書館의 地域社會 情報奉仕의 必要性은 重要한 課題가 아닐 수 없다.

## 2. 大學의 社會的 機能

### 1. 大學 機能의 變遷

學校의 發生은 社會의 發展과 그 必要에 依하여 基因된 社會속의 所産으로<sup>(6)</sup>, 學校와 社會와의 協力關係는 地域社會의 中心으로서 學校의 機能을 가져야 한다.<sup>(7)</sup> 그러므로 學校가 擔當해야 할 任務는 發展된 社會의 遺産을 繼承하고 傳達하는 하나의 制度的인 機關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學校의 任務는 加速化되는 社會發展에 따라 學校 社會文化의 結晶體인 遺産 即 知識의 繼承이나 傳達뿐 아니라, 社會의 改造의 場으로 登場하게 된 것이다.

中世에 있어 Platon의 Academia에 나타난 大學의 目的은 “自由”<sup>(8)</sup>라고 하였다. 그래서 「야스퍼스」는 “大學의 根本概念을 教授와 研究의 自由이다”<sup>(9)</sup>라고 하여 大學의 發生이 비록 中世의 社會變化에서 생긴 Guild<sup>(10)</sup>에 그 根源을 두고 있기는 하나 社會와 隔離된 狀態에서 研究와 教授를 爲한 自由의 機能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까지도 大學은 象牙塔의인 觀念에서 教育되고 研究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世紀에 들어와 學問의 急激한 發展과 科學의 發達에 依한 社會的인 大變遷으로 말미암아 象牙塔으로서의 大學의 機能에 修正이 加해져서 國家나 社會發展을 爲한 副隨的인 機關으로 그 概念이 轉換되었다.

이리하여

“學校教育은 學校機關에만 局限되는 것으로 부터 벗어나서 力動的인 人間關係의 全體的인 構造와 連結되며 그것을 通하여 모든 文化는 그 自體의 構造와 實際의 目的을 保存하거나 革新해 가는 것이다.”<sup>(11)</sup>

(6) John Dewey, *My Pedagogic Creed* (New York, McMillan Co., 1961), pp. 12—17에서 “學校는 原來社會의 必要에 의하여 社會속에서 發生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黃宗建, 教育社會學(대구:형설출판사, 1973), p. 52에서 “學校의 發生은 화폐와 鎊의 발달, 직업의 분화, 국가 및 도시 발달, 문화발달 등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발생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7) Edward G. Olsen et al. *School and Community* (New York: Prentice-Hall, 1954), p. 51

(8) 오트킨, “大學의 歷史” 大學의 理解, 연세대학교교양학부편(서울: 1969)p. 7

(9) *Ibid.*

(10) Guild는 中世의 封建社會에서 都市의 商人, 手工業者의 同業組合으로, 中世大學은 이상과 같은 Guild 社會를 배경으로하여 Guild 형태를 가지고 發生했다.

(11) Theodore Brameld, *Education for the Emerging Age*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61), p. 17

따라서 大學과 社會와의 關係를 論함에 있어 “大學은 象牙塔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社會實益을 前提로 하고 學問을 研究하는 機關인 同時에 社會公益에 이바지할 수 있는 人間을 形成하는 機構”(12)이며 大學이 位置한 地域社會, 나아가서는 國家의 問題解決과 福祉增進에 直接的으로 關與하고 奉仕하는 機能을 現代社會는 그 어느 時代보다 切實하게 要請하고 있다.(13) 그래서 大學은 學問을 爲한 學問도 必要하지만 學問은 大學人을 爲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一般社會에 還元되어야 하기 때문에 大學의 教育이나 研究는 社會의 實情과 流離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14)

大學의 役割은……“그 하나는 知識의 傳達이며 또 다른 하나는 知識의 創造이며 또 다른 하나는 知識의 活用이다.”(15)

이렇게 볼 때 大學의 機能은 教授와 研究이며 이의 窮極의인 目的은 社會改革 및 創造를 包含한 “社會奉仕를 爲한 教授와 研究.”(16)가 되어야 한다고 強調하고 있다.

## ㄴ. 教育方法의 問題와 大學改革

8.15解放當時 19個의 高等教育機關에 7,819名의 學生이 在籍하고 있었던 것이 1972年 現在는 173個의 高等教育機關에 228,967名의 學生이 在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量的인 增大는 質的인 向上的 問題를 提起하게 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改革을 試圖하게 되었고(17) 그 結果로 1973년에는 實驗大學案이 나타났고, 1974년에는 能力別卒業을 爲한 大學改革案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大學改革은 教育方法에 있어서 커다란 變化를 주게 되었으며 “大學에서는 教養教育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있고”(18) 專門教育은 보다 次元 높은 大學院教育으로 移讓되고 있음도 또한 알 수가 있다.

大學은 이러한 時代의 要求에 副應하는 教育思潮의 變化에 對備하여……“첫째, 專用價値가 豊富한 基本的인 資料를 効果的으로 學習하고, 둘째, 學校를 벗어났을 때 個人的으로 學習할 줄 아는 探究能力을 教育시켜야 할 것이다.”(19)

(12) 金永達 “大學과 社會” 學苑, 第五輯(1965), p.30

(13) 朴大善 “大學의 使命” 大學의 理解, p.41

(14) 美·日의 產學協同體制(高麗大學校經濟研究所, 1973), p.94

(15) 엔첸징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大學의 奉仕活動 擴張” 高等教育的 改革, 朴大善編(연세대학교, 1973), p.161

(16) James A. Perkins, *University in Trans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7) pp.9-10에서, 大學의 本來的 機能에 對해서 “知識의 獲得이라는 側面은 大學에 있어서의 研究調査의 使命수행으로 나타나고, 知識의 전달은 教育使命으로, 知識의 活用은 大學의 社會奉仕使命으로 具顯된다”라고 大學의 社會奉仕의 重要性을 말하고 있다.

(17) 1960年初半 高等教育政策 재검토(군정시기에 대학경비정책)  
1960年後半 대학정원령, 학위등록제, 대학입시 예비고사제도 마련  
1966-67年 고등교육의 형제경과 시선과 내용의 종합적 연구추진

1969-70年 장기종합교육계획수립

1971年 교육정책심의위원회 내에 고등교육분과위원회조직

(18) 高等教育研究Ⅱ; 外國高等教育의 實際와 改革動向, 文教部 教育政策審議會, 高等教育分科委員會(서울: 文教部, 1973), p.94.

(19) Richard W. Burns and Gary D. Brooks, “教育課程改革的 必要性” 朴鍾參譯, 教育科學, 44號(1971.4), p.43.

또한 變化하는 社會에 있어서 우리의 教育을 爲해서 重要한 것은 얼마나 많은 知識과 技術을 傳達해 주었느냐는 것이 아니고 一生동안 끊임없이 學習할 수 있는 能力과 意慾을 길러 주는 일이다.<sup>(20)</sup> 따라서 人間이 社會 안에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늘 새롭게 自我를 이룩한다는 뜻이다.<sup>(21)</sup>

그러므로 教育이 노리는 것은 人生航路 卽, 學界나 社會에서 장차 새로운 問題에 逢着했을 때 學生 스스로의 힘으로 그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能力을 涵養시켜 주는 데 있는 것이다.

實驗大學의 重要한 意義 亦是 學生들 自身이 스스로 自身의 問題를 解決할 수 있도록 問題解決의 方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大學教育은 充分한 知識을 補給하므로 實際社會에 나가서 이를 活用하여 社會生活을 營爲한다기 보다는 變化하는 社會속에서 어떤 問題에 부닥쳤을 때 그 問題解決의 方法을 배워 나감으로서 社會가 要求하는 指導의 人物로서 社會發展에 寄與하고 充分한 創意力開發을 爲한 自己發展과 繼續的인 社會의 適應을 期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 大學教育의 社會奉仕的 技能이 있는 것이다.

#### ㄷ. 指導者 養成機關으로서의 大學

高度의 教育을 받은 사람들의 豊饒한 需給은 우리 世代的 社會 및 經濟發展에 絶對的인 前提要件이 되고 있으며 國家生存問題와도 密接한 關聯이 있다.<sup>(22)</sup>

大學의 教育的 意義는 社會에 有能한 指導者 養成을 하는 機關이란 事實은 이미 論及한 바 있다. “教育은 學生들에게 ……自身을 遠觀하고 世界를 全體의으로 展望할 수 있는 次期的 指導者의 口實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sup>(23)</sup>라고 하였고 大學의 將來에 對해서 最近의 두가지 重要한 發言이 發表되었는데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大學의 精神의 指導者로서의 責任을 強調하는 것이었다.”<sup>(24)</sup> 또한 “大學은 大學의 任務로서 知識의 練磨와 傳達, 研究의 發展 및 指導者 養成을 根本으로 하고 있다.”<sup>(25)</sup>

前術한 바와 같이 大學은 大學 그 自體에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고 社會가 要求하는 專門人이나 指導者養成機關으로서의 所任을 擔當하고 있으므로 地域社會와의 關係는 끊을 수 없는 密接한 紐帶關係를 持續해야 할 것이다.

解放以後 韓國의 高等教育은 6.25 戰亂과 두차례의 政治的 變動(4.19.5.16)에도 不

(20) 李奎浩, 人間の 社會化와 社會의 人間化(서울: 培英社, 1974) p.225. 일평교육의 권오성에 대해서 本書의 p.45--50에서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의 생명이 10年前까지만 해도 50年은 유지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오늘날처럼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지식의 생명이 5年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고등교육을 받는 현대인은 5년이 지나면 현대사회의 전문직과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1) *Ibid.*, p.226.

(22) Peter F. Drucker, *Landmarks of Tomorrow*(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9), p.114

(23) 李鐵柱譯, *op. cit.*

(24) Sir Eric Ashby “未來의 象牙塔” 李鐵柱譯, 教育科學, 47號(1971.1) p.160.

(25) 高等教育研究Ⅱ, *op. cit.*, p.249.

教育法 第108條에 나타난 “大學의 理念은……둘째는 지도자 양상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拘하고 急速으로 成長하여 왔다. 1950年代로부터 1960年代의 國家近代化의 原動力이 되었으며 特히 高等教育機關이 産業戰線에서 活躍한 高級人力을 輩出한 必然的 結果였다고 하겠다.<sup>(26)</sup>

1974年 3月 現在 全國에 高等教育機關은 173個에 達하고 있으며 1972年 1年間 輩出한 卒業生이 무려 40,826名이나 되어 1962年 26,279名에 比해 1.5倍나 증가하였고 1962年에서 1972年 10年동안 社會에 進出한 高級人力은 402,713名<sup>(27)</sup>으로 1970年 生産機關에 從事하는 927,657名에 比하면 約 44%에 該當되고 全體의 經濟活動人口 10,200,000名<sup>(28)</sup>에 比하면 約 4%나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大學 卒業者는 거의 大部分이 卒業과 同時에 大學과의 關係를 끊고 있을 뿐 아니라, 大學 亦是 그들에게 아무런 影響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韓國大學의 實情이다.

大學이 社會의 專門人과 指導者의 養成機關으로서 그 機能을 自處한다면 養成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繼續되는 社會生活의 變化속에서 專門人으로 指導者로서의 그의 所任을 擔當할 수 있도록 그들에 問題解決의 幀으로서 大學이 對處하고 圖書館은 情報提供의 萬全을 期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서 大學圖書館의 機能을 中心으로 地域社會와 大學圖書館과의 連結을 試圖하여 보고자 한다.

### 3. 大學圖書館의 社會的 機能

大學圖書館의 3가지 機能<sup>(29)</sup>을 社會奉仕的인 立場에서 論하여 보면

가. Service 機關이다.

지금까지의 大學은 Academia에 緣由한 象牙塔의인 機能에 얽매어 地域社會와 닿을 줄이 많을수록 價値있는, 水準 높은 大學이라고 生覺하여 왔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時代의 發展과 이에 따른 教育思潮의 轉換은 社會에로의 답을 헛지 않으면 안되도록 要求되어졌고 社會와 直結될 수 있는 即 地域社會와의 共同運合體로서의 그 機能을 堪當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大學의 從屬機關인 大學圖書館의 目標遂行을 善導해야 하는 大局的 見地에서 “大學의 서비스 機關”으로서의 機能에서 脫皮하여 地域社會를 爲해 開放됨으로서 上記한 目標들의 效果的인 達成이 可能해질 것이다.

(26) 金慶柱, 金萬圭, 韓宗柄, 韓國高等教育改革의 方向摸索, 文教部高等教育政策審議會高等教育(가) 調査과제(문교부, 1973) p.9.

(27) 李正환의 報告, 1961—1971年(문교부)에서 발췌.

(28) 韓國統計年報, 1973(통계기획원)에서, 1972年 12월의 기준으로, 14歲이상의 正장 경제인구 總數를 示함.

(29) 日本大塚, 圖書館學概論(東京: 學藝圖書株式會社, 1960) p.132—3에서 大學圖書館의 機能을 “1) 學內的 Service 機關 2) 學內的 Information center 3) 學內的 研究調査機關”이라고 述하고 있다.

따라서 “學內”에서라는 從來의 概念을 “地域社會의 서비스 機關”으로 擴大하므로서 地域社會로부터 認定받는 서비스 機關의 位置를 堪當해야 할 것이다.

1. Information Center의 機能이다.

오늘날 社會에서 크게 重要視되어 나타난 것은 情報의 問題이라고 하겠다. 從來의 大學圖書館이 가지던 Information Center의 機能도 亦是 大學內에 局限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政府의 工業立國으로의 政策은 이의 成功的 遂行을 爲해 廣範하고 깊은 情報의 準備가 要求되어지고 있다. 다음에서 大學圖書館이 地域社會의 情報센터 役割을 堪當해야 하는 實際的인 理由를 3가지 觀點에서 論하고자 한다.

그 첫째는 地域社會에 位置한 公共圖書館의 貧弱性을 들 수 있다. “地域社會의 發展은 地域社會로 하여금 스스로 그들의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發展을 伸張할 수 있도록 指導해 주는 것이다”(30)라고 하였다. 韓國에 있어서 이와 같은 地域社會의 發展을 指導해 줄 수 있는 公共圖書館의 問題는 地域社會의 社會教育機關으로서 情報센터의 口實을 堪當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韓國에 있어서 公共圖書館의 貧弱性은 周知의 事實이지만 1972年 圖書館 統計에 依하면 設置對象 163個所(31)에 不過 72個 圖書館으로 設置率은 44%이며, 情報奉仕의 基本的인 與件인 藏書는 72個館에 1,323,612(32)卷으로 1個館當 平均 18,384卷 程度이며 이것도 大都市의 몇몇 公共圖書館이 이의 大多數를 所藏하고 있어 餘他 많은 數의 圖書館으로서의 社會의 發展을 善導하기 爲한 情報센터의 機能을 堪當하기에는 事實上 力不足이며 實現度 또한 遼遠한 것이라 하겠다.

두 번째, 產業體內的 情報施設의 貧弱性이다. 韓國 產業體의 歷史的 背景과 機能은 大多數가 生産을 爲한 施設擴充에 急急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產業體가 情報의 場으로서 圖書館을 設置하거나 擴充할 程度의 段階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開發途上國家에서 當面한 共通的인 問題이기는 하나 그러나 國際的인 生産業體와의 競爭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새로운 生産品의 開發과 商品의 質的인 向上에서 비롯될 것이며 이러한 企圖은 繼續되는 情報의 入手없이는 不可能하다는 것을 前提할 때 보다 遼大하고 來日의 社會發展과 生産의 質的量的인 成長을 爲해서 必要한 情報를 迅速히 把握하고 入手하고 該當되는 研究者에게 提供하는 近代化된 特殊圖書館의 시스템이 形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韓國에 企業體內的 圖書館이 이를 堪當하기에는 遼遠한 것이다. 1973年 12月 現在 生産業體는 25,816個로 10年前인 1963年 18,853個所에 比해 1.3倍가 增加했고 從事者는 445,836人에서 937,650名으로 2倍가 增加했다. 그러나 “特殊圖書館은

(30) 黃宗建 “地域社會發展과 教育의 役割” 韓國地域社會發展에 관한 세미나; 주제: 한국지역사회의 발전에 따른 체문제(속리산 관광호텔; 청주대 학부실 한국지역사회의 문제연구소, 1974. 5. 3—5) p. 81.

(31) 함동연갑, 1973年(合同通信社, 1973) p. 77에서 설치대상은 1郡 1個館 설치의 기준으로 표준으로 하고 郡단위 139개소와 구청단위 24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음(68年 文教部 五個年계획에서)

(32) 한국의 도서관, 1973. (한국도서관협회, 1973)

1973年 161個所에 不過하며 그 中에서도 生産業體內에 位置한 圖書館은 30餘個所<sup>(33)</sup>로 되어 있음을 統計資料는 指摘하고 있다.

서 제, 大學圖書館의 優越性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大學圖書館은 全國에 173個의 高等教育機關에 95%의 設置率을 보이고 있고 이들이 所藏한 藏書는 總 6,325,409 卷<sup>(34)</sup>으로 公共圖書館에 比하여 2倍가 넘는 施設과 거의 6倍에, 가까운 藏書確保로 情報資料의 優越性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大學圖書館은 지금까지는 學內의 研究, 調查機關으로서 情報에타의 日費을 하여 왔다. 그렇다고 韓國의 大學圖書館이 施設基準이나 藏書量으로 바치 外國의 것에 比하여 學內 情報機關으로서의 機能을 充分히 發揮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직 完然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國內에서는 施設과 資料의 量과 質 그리고 人員의 數와 質的인 問題에 있어서 어느 公共圖書館보다도 優勢하다는 것은 누구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大學圖書館의 情報奉仕를 地域單位 企業體나 地域社會의 指導者를 爲해 開放함으로써 새로운 文化創造을 善導하고 施設資料等의 相互交流를 通해 制限된 奉仕機能을 超越하므로써 奉仕의 極大化를 期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企業體의 情報의 장으로 連結된 大學圖書館은 企業體에 充分한 情報을 提供하여 活用에 用할 수 있고 이로 因한 大學圖書館의 情報入手 및 供給을 爲해 不足되는 經費의 充當도 可能케 될 것이다.

ㄷ. 研究調查機關으로서의 機能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研究의 機能은 大學의 重要한 機能에 하나인바 이러한 研究의 기능 亦是 研究自體에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社會奉仕와 直結될 수 있는 研究이어 한다. 即 研究調查機關으로서의 圖書館의 機能은 學內에 局限된 것이 아니라 社會속에 大學이 存在하야 社會發達의 母胎가 될 수 있도록 地域社會의 指導者나 各 企業體의 生産活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研究 調查機關으로서의 機能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大學이 엘리트를 爲한 White Color의 養成과 Blue Color의 養成機能을 同時에 堪當하고 있고”<sup>(35)</sup> 또한 生涯教育의 必要를 強要하고 있는 社會的 輿論이 맞추어 大學圖書館은 그들에게 알맞은 知識傳達機關과 그들의 研究를 도울 수 있고 自己發展과 地域社會의 發展을 善導할 수 있도록 해 주는 調査機能으로서의 位置를 維持해야 할 것이다. 이를 爲해서 大學圖書館은 學內의 事情과 한편을 더 나아가 地域社會가 가지고 있는 諸特性을 考慮해서 여기에 適合한 調査를 爲한 情報蒐集과 奉仕에 힘써야 할 것이다.

(33) *Ibid.* p. 34--41.

(34) *Ibid.* p. 10.

(35) 木原健太郎 “マスユミ時代の教育” *マスユミ時代の教育*, 日本教育社會學會編(東京: 東洋館出版社, 1970) p. 4.



#### 4. 相互協力體制의 確立

##### ㄱ. 地域社會과의 相互協力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오늘날의 大學圖書館은 大學內의 附屬機關으로서만 存在할 수 있으며 社會發展에 利益을 爲해 社會의 領域을 擴大하여 地域社會을 위한 協助機關이 되어야 할 것이다. “社會變化는 한 地域社會의 새로운 環境의 條件에 適應하는 過程”(36)이고 地域社會開發의 目的하는 바는 “地域社會 全體의 經濟的, 社會的 進歩의 條件을 創造하는 것”(37)이다 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地域社會의 指導者 養成機關으로서의 大學은 卒業한 이들에게 社會人으로서 또는 새로운 社會을 創造하는 指導者로서의 役割을 擔當해 나갈 수 있도록 支援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支援은 첫째, 卒業生과의 個別的인 關係의 繼續的인 維持와 둘째, 地域社會 團體의의 協力體制을 形成하므로써 보다 具體的인 奉仕에 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爲해서는 그 大學의 特性에 符合되는 地域社會團體와의 相互協력이 必要적할 것이다. 예를 들면 神學大學 圖書館과 宗教團體, 教育大學 圖書館과 教育團體等……大學圖書館은 이들과의 資料를 통한 情報提供과 提供된 情報의 理解를 爲한 技術支援을 提供함으로서 惠澤을 받는 地域社會團體로부터 經濟的인 支援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보다 폭넓은 資源의 確保도 可能해질 것이다.

##### ㄴ. 企業體와의 相互協力

韓國의 企業分布는 地域的인 工業團地 造成計劃에 依하여 地域的으로 特性이 考慮되고 있다. 高等教育機關에서도 地域社會 發展에 効果적으로 寄與할 수 있도록 이들 高等教育機關의 設置는 各 地域社會의 特性 및 產業構造를 基準으로 全國을 四大圈으로 나누고”(38) 있으며 따라서 大學의 學科增設에 있어서도 이러한 地域社會를 考慮해야 한다고 強調하고 있어(39) 地域社會에 位置한 生産企業體의 特性에 맞는 產學協同體制의 確立을 爲한 方案이라 하겠다.(40) 그러나 지금까지의 產學協力體制은 大學과 產業體과의 相互利害關係로 그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기 위한 協力에서 가 아니고 받기 爲한 協力を 期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原因을 말하고 있다.(41) 이와 같은 協力體制의 根本現象을 大學圖書館을 통해서 주는 것으로부터 協力的 試圖를 期하고져 하는데도 그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36) Irwin Sanders, *The Community* (New York: Ronald Press Co, 1958) pp. 150—151.

(37) Bureau of Social Affairs, *U. N. Social Progress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1965) p. 6.

(38) 高等教育研究 I : 韓國高等教育的 實態(1945—72), 文教部 教育政策審議委員會 高等教育分科委員會(文教部, 1973) p. 85에서 개혁방안중 제5에서 “大學의 特性化를 육성한다”고 하고 있다. 文教部, 高等教育改革事業(지역대학 특성화를 위한 세미나 중간보고, 1972) 18면 參照.

四大圈은 ① 漢江流域圈 ② 錦江流域圈 ③ 洛東江流域圈 ④ 梁山江流域圈

(39) 金鍾哲 “韓國高等教育的 理念 및 制度의 方向” 장기종합교육계획안: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고등교육), 고등교육계획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및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면 (문교부, 1972).

(40) 高等教育研究 I, p. 85. 개혁안중 第4에서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한다”라고 하고 있다.

(41) 美·日의 產學協同體制, p. 110.

相互協力を 통한 生産業體에 對한 大學圖書館의 情報奉仕는 地域特性에 맞는 하나의 좋은 産學協力體制가 形成될 것이고 國家發展과 生産機能의 擴大에 寄與하는 契機가 될 것이다.

### Ⅲ. 情報奉仕의 諸方案

地域社會를 爲한 大學圖書館의 情報奉仕의 方法에 對해서는 여러가지 角度에서 摸索될 수 있을 것이나 보다 細部的이고 專門的인 問題에 對해서는 今後 많은 研究가 進行될 것으로 믿고 本論에서는 基本的인 몇가지 方案에 對해서 概括的으로 生覺해 보고자 한다.

#### 1. 情報에 對한 source 提供

이는 每週 入手되는 資料에 對한 source를 提供해 주는 일이다. 이의 基本的인 方法은 新着資料案内나 目次複寫 service 등을 들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主로 後者に 對해서 生覺해 보고자 한다.

圖書館에 入手되는 逐次刊行物 및 特許資料, 各種 研究報告書 등의 目次를 複寫하여 各 企業體內에 設置되어 있는 情報擔當機關을 通하여 提供하는 方法인데 이는 自己分野의 새로운 情報에 對한 迅速한 入手를 可能케 해 주며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研究 및 新 開發品創造에 크게 寄與하게 될 것이다.

勿論 이러한 方法은 地域社會의 一般住民에 對한 奉仕方法으로는 妥當하지 않겠으나 各種 企業體나 生産業體의 貧弱한 情報體制를 補完시켜 새로운 製品의 開發이나 經營을 爲한 企業情報로서는 매우 有益한 結果를 달게 될 것이다.

#### 2. 企業體 資料室에 對한 技術支援

오늘날 科學技術 分野의 急激한 發達로 인하여 企業體의 情報蒐集은 傳來的인 圖書館資料보다는 「도큐멘테이션」 性格의 資料蒐集을 要求하게 되었다. 따라서 一般圖書館의 蒐集整理와는 달리 高度의 專門化된 整理技術을 必要로 할 것이고 Carter와 Bonk가 指摘한 바와 같이<sup>(42)</sup> “까다롭고 複雜한 逐次刊行物의 管理 및 利用者 個個人을 爲한 効率的 奉仕를 爲하여 專門化된 奉仕方案이 要請되어질 것이다.” 여기에 企業體의 情報資料室 設置, 整理 및 運用全般에 對한 大學圖書館의 支援이 必要로 해 지는 것이다.

(42) Mary Duncan Carter and Wallace John Bonk, *Building Library Collections* (3rd ed., New York: Scarecrow Press, 1969), p. 92.

(43) 中村初雄編, *新しい圖書館*(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73) p. 146에서 “學校外의 利用者를 고려해서 교본가까이 도서관을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 3. 資料의 貸出 및 施設 活用問題<sup>(43)</sup>

오늘날 地域社會 情報센터로서의 役割을 擔當해야 할 公共圖書館이나 特殊機關의 目標遂行을 爲한 이들 圖書館은 모두 資料의 貧困, 施設의 落後, 專門司書의 不足等으로 因해서 事實上 제 機能을 誠實히 遂行치 못하고 있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우리나라 圖書館의 先頭구실을 形成하고 있는 大學圖書館의 資料 및 施設을 이들 地域社會에 開放하므로써 產學協同을 促進케 하고 文化創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 4. 郵便貸出 問題

이 郵便貸出 問題는 筆者가 勤務하고 있는 圖書館에서 여름, 겨울放學을 利用하여 學生들에게 施行한 結果 매우 滿足할만한 成果를 거둔 바 있다.

이는 前項에서 論及된 바와 같이 時間關係로 圖書館을 利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郵便으로 願하는 資料를 申請하고 여기에 對해서 大學圖書館이 所定期間을 明示하여 郵送해 주는 制度이다. 그러나 이의 實施을 爲해 한가지 明確히 해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은 郵便貸出資料의 範圍結定 問題이다. 卽 簡單히 읽을 讀書物 程度로 이것을 이루어지게 되면 大學圖書館은 그 번거로운 業務量을 堪當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郵便貸出이 可能한 資料는 學術 및 專門書籍으로 局限시켜야 할 것이고 貸出期限을 嚴守하도록 잘 運營되어야 할 것이다.

### 5. 弘報活動의 強化

지금까지 大學圖書館이 地域社會에 對해서 門을 닫어 왔음은 周知하는 事實이다. 그래서 大學圖書館이 地域社會에 對해서 行하고자 하는 情報奉仕의 內容을 周知시키고 効果的으로, 合理的으로 이를 利用할 수 있도록 一定期間동안은 集中的으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部分的으로 宣傳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 弘報活動에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의 意義가 있다. 첫째는 大學圖書館이 地域社會를 爲해 門을 開放하고 各種奉仕活動에 臨하고 있다는 事實을 알리며, 두째는 大學圖書館이 行하고 있는 奉仕의 種類 및 內容 그 利用方法을 알게 해 주며, 세째는 弘報活動을 통해 地域社會 住民이 그 利用方法을 터득하므로써 圖書館側이 그 利用方法에 對한 不必要한 案內의 횟수를 줄임으로서 司書의 時間을 節約할 수 있다는 點等이다.

## Ⅳ. 結 論

以上에서 韓國의 產業社會化의 構造的인 變化와 이에 따른 大學圖書館의 社會的

機能의 地域社會을 爲한 大學圖書館의 奉仕領域擴大의 必要性 및 그 方案에 對하여 考察하여 보았다.

1章 1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1963년의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起點으로 하여 前近代의인 農耕社會으로부터 産業社會化로의 急激한 이행은 이 分期의 發展을 促進시킬 수 있는 各種情勢의 必要性을 增大시켜 왔으며 象牙塔속의 隱遁한 大學으로부터 社會變化에 直接參與할 수 있는 機關으로서의 大學이 되도록 그 機能의 本質的인 修正을 刺戟시켜 오고 있다.

이러한 思潮는 大學이 學問의 研究 및 創造等의 在來의 目標에서 벗어나 社會改革 및 創造를 包含한 社會奉仕를 爲한 教授와 研究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Brameld나 金永達, 朴大善 諸氏等의 見解에서 充分히 벗출 수 있다.

이러한 大學教育의 本質的 機能의 修正에 따라 大學의 從屬機關인 大學圖書館은 마땅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2章 3에서 論及된 바와 같이 傳統的인 學內的 서비스 機關으로서의 機能만 遂行해 오고 있는 實情이라 時代의 變化에 鈍感하고 오히려 逆行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우리나라 圖書館界의 先頭구름을 形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大學圖書館의 優秀한 資料들과 훌륭한 施設, 잘 訓練된 司書들은 國家全體의 發展이라는 大前提下에서 上記條件을 별로 갖추고 있지 못하는 地域社會의 公共圖書館의 任務를 一部分擔해 줌으로써 2章 3에서 밝힌 바와 같은 바람직한 產學協同體制의 形成이 可能해질 것이다.

이러한 地域社會에 對한 奉仕의 方案은 3章에서 提示한 바의 入手되는 資料에 對한 新着資料案内나 目次複寫 서비스 등의 方法을 통한 情報의 Source提供, 企業體의 情報資料室 設置, 整理 및 運營 全般에 걸친 技術支援, 地域社會에 對한 資料貸出 및 施設開放, 時間이나 距離關係로 圖書館을 直接利用할 수 있는 住民을 爲한 郵便貸出 方法等의 多樣한 形態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大學圖書館의 地域社會에 對한 奉仕의 여러 形態를 各種 弘報活動을 通하트르서 利用을 增大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對 地域社會 情報奉仕는 이를 行할 수 있는 自體整備가 于先하여야 할 것이며 그 大學圖書館이 所屬한 大學 行政當局의 積極的인 支援와 業務에 實際的으로 從事하는 圖書館人들의 희생적인 奉仕精神이 隨伴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指摘해 두고 싶은 것은 奉仕의 段階를 세우고 그에 따라 처음부터 無理가 가기 않도록 해야 한다는 點이다.

그 段階는 첫째 施設開放, 둘째, 一般的인 情報奉仕 및 企業體 情報資料室에 對한 人員 및 技術支援, 셋째, 專門的인 情報奉仕等을 生覺할 수 있겠다.

이것이 完成될 때 情報센터인 Korstic과 大學圖書館의 情報支援은 이 나라의 經濟社會發展에 크게 그리고 價値있는 폭넓은 情報奉仕가 될 것이며 來日의 發展을 期約할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高等教育研究Ⅰ：韓國高等教育的 實況(1945—72)，文教部 教育政策審議委員會 高等教育分科委員會編，文教部，1973。
- 高等教育研究Ⅱ：外國高等教育的 實況와 改革動向，文教部，1973。
- 과학기술연구소. 서기 2000년의 한국에 관한 연구조사. 서울：과학기술처，1971。
- 金潤洙，金萬圭；韓宗哲，韓國高等教育改革의 方向模索，文教部 教育政策審議委員會 高等教育分科委員會議題，서울：文教部，1973。
- 金永達，“大學과 社會” 槓苑，第五輯(1965)
- 金永植，“中小機械工業의 空間變化” 研究論文集(호성여자대학，1974)
- 金鍾哲 “韓國高等教育的 理念 및 制度의 方向” 장기종합교육계획안；교육의 현상과 문제점(고등교육)，고등교육 계획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및 장기종합교육계획회의의결문，서울：문교부，1972。
- 美·日의 産學協同體制，高麗大學校經濟研究所 編，서울：1973。
- 朴大善 “大學의 使命” 大學의 理解，연세대학교교양학부 編，서울：1969。
- 엔첸싱 “地域社會開發을 위한 大學의 奉仕活動擴張” 高等教育的 改革，朴大善 編，서울：연세대학교，1973。
- 李奎浩 人間의 社會化와 社會의 人間化，서울：培英社，1974。
- 李鐵柱 “切望되는 훌륭한 大學入試制” 경향신문，1973.7.19. 4面。
- 조희선 “大學의 歷史” 大學의 理解，서울：1969。
- 黃宗建，教育社會學，大邱：한선출판사，1973。
- 黃宗建 “地域社會發展과 教育의 役割” 韓國地域社會發展에 관한 세미나；주최：한국지역사회발전원에 따른 계획제，청주대학교 한국지역사회문제연구소，1974.5.3—5。
- 木原 健太郎 “마스콤시대의 教育” 마스콤시대의 教育，日本教育社會學會 編，東京：東京館出版社，1970。
- 椎名六郎，圖書館學概論，東京：學藝圖書株式會社，1960。
- 中村初雄 編，新しい圖書館，東京：日本圖書館協會，1973。
- Ashby, Sir Eric, “未來의 象牙塔” 李鐵柱 譯，教育科學，47號(1971.1)
- Brameld, Theodore, *Education for The Emerging Age*,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61.
- Bureau of Social Affairs, *U. N. Social Progress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1955.
- Burns, Richard W. and Brooks, Gary D., “教育課程改革의 必要性” 朴通參 編，教育科學 44號(1971.4)
- Carter, Mary Duncan and Bonk, Wallace John. *Building Library Collections*, 3rd ed., New York: Scarecrow Press, 1969.
- Dewey, John. *My Pedagogic Creed*, New York: McMillan Co., 1961.
- Drucker, Peter. *Landmarks of Tomorrow*,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9.
- Olsen, Edward G. et al. *School and Community*, New York: Prentice-Hall, 1954.
- Perkins, James A. *University in Trans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57.
- Sanders, Irwin. *The Community*, New York: Ronald Press Co., 1958.

On Community Information Service  
by a College Library

Kim, Nam Seuk ★

{Summary}

As a society rapidly advances in technology and industry, various demands for information are increasing and becoming more specialized than every before. The college library can no longer restrict its service to the people on the campus alone. There is no fundamental change in its place on a college campus, but it has an additional role to play: to meet the demands for information from the community outside of the campus.

There is no denying that there are public libraries meant to serve the community and some small spacialized libraries to support certain institutions. But it is also well known that these libraries are inadequate to satisfy the demands for information in a highly diversified and specialized society of today largely due to lack of facilities, funds, and personnel.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almost imperative that the college library open its door to the community.

It was attempted in the article to point out the needs of cooperation between the college library and the community for economic and intellectual advancement on the campus and in the community. Various ways of making the college library available to the community were also discussed.

---

★ Director, Keimyung College Library  
Chairman, Dept. of Library Science, Keimyung Junior Vocational College